



왕의, 외교 초심 지키며 국제 공평 · 정의 수호할 것

7일, 14기 전국인대 3차 회의는 미디어(梅地亚)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이며 외교부장인 왕의가 중국 외교정책과 대외관계에 대해 국내외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왕의가 중국 외교정책과 대외관계에 관한 국내외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왕의가 중국 외교정책과 대외관계에 관한 국내외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글로벌 공동발전의 건설력량 될 것

올해 국제정세는 여전히 도전으로 가득하지만 중국 외교는 초심과 다름 없이 각국과 함께 세상의 정도를 지키면서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국제 공평 · 정의를 수호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변란이 뒤엉켜있는 상황으로 확실성이 갈수록 글로벌 희소 자원으로 변화하고 있다. 각국, 특히 대국의 선택은 시대의 방향을 결정하고 세계 구도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 외교는 흔들림 없이 역사의 올바른 편이자 인류 진보의 편에 서있으며 이 같은 중국의 확실성은 불확실한 세계를 안정시킬 것이다.

우리는 국가이익을 수호하는 확고한 역량일 것이다. 자강불식의 영예로운 전통을 가진 중국인민은 일을 지지하지도 않고 더더욱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으며 두려워한 적도 없었다. 어떠한 국한의 압박이나 위협도 14억 중국인의 단결력을 흔들 수 없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적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

하는 정의로운 역량이 될 것이다. 평등 · 개방 · 협력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중국특색의 이슈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글로벌 사우스와 단결 · 자강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갈 것이다. 평화발전은 세계 모든 국가의 공통된 선택이어야 한다.

우리는 국제 공평 · 정의를 지키는 진보력량이 될 것이다.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인류 앞날에 대한 생각과 인민 복지에 대한 마음으로 함께 논의 · 건설 · 공유하는 글로벌 관리를 추진하고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며 평등하고 질서있는 세계 다극화의 건설을 위해 더욱 광범위한 합의를 응집할 것이다.

우리는 글로벌 공동발전의 건설력량이 될 것이다.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폭넓은 기회를 각국과 공유할 것이다.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하고 개방 · 포용 · 비차별의 국제협력 환경을 조성해 보편적 혜택과 포용의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할 것이다.

대만 귀속은 국제질서의 중요 구성 부분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이는 역사이기도 하고 사실이기도 하다. 대만이 중국으로 귀속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유엔에서 대만 지역의 유일한 명칭은 '중국 대만성'이다. 대만은 국가가 된 적이 없으며 과거에도 아니었고 앞으로도 절대 그럴 가능성이 없다.

'대만독립'을 선포하는 것은 국가를 분열시키는 것이다. '대만독립'을 지지하는 것은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것이다. '대만독립'을 용인하는 것은 대

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것이다.

각국의 주권과 영토안정을 존중한다면 중국의 완전한 통일을 지지해야 하고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면 그 어떤 형태의 '대만독립'도 반대해야 한다.

'대만독립'의 분별 행적은 불안정하다가 스스로 불에 타 죽을 뿐이고 '대만으로 중국을 억제'하려는 시도는 사마귀가 앞발을 들어 수레를 막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중국은 결국 통일될 것이며 반드시 통일될 것이다.

일본, 이웃으로서 올바르게 행동해야

력사를 깊이 새기는 것은 미래를 더욱 잘 개척하기 위한 것이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앞길도 잃어버리게 된다. 군국주의 망령의 부활을 막는 것은 일본이 한시라도 방심해서 안되는 의무이자 중국과 아시아 인민들의 도전할 수 없는 확고한 의지이다.

대만을 빌어 지킴은 일을 일으키는 것은 곧 일본에 말썽을 일으키는 것이다. 식견이 있는 일본 사람이라면 력사의 대면과 직면해 어떤 것이 이웃으로서 해야 할 일인지, 어떤 것이 시대의 흐름인지를 숙고하고 올바르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는 '공동가원', 발전 기회 공유해야

이웃간에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가화만사흥'(家和万事兴)이라는 말을 믿는다. '공동가원' 리념을 고수하고 '운명공동체' 방향으로 나아가며 평등하게 협상하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 반드시 이견을 해소하고 협력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는 중국의 생활터전이자 아시아 각국과 함께 하는 공동가원이다. 습근평 주석은 '친성혜용'(亲诚惠容)이라는 주변 외교 리념을 제시하고 중국과 주변국간의 우호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이끌었다. 오늘날 중국은 주변 17개국과 운명공동체 구축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중남반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 '2개의 운명공동체 클러스터'(两大集群)를 형성했다. 중국은 주변 25개국과 '일대일로' 공동 건설 협력 협의를 체결했으며 18개 국가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됐다. 중국은 이제 아시아 안정의 중심이자 경제 발전의 엔진, 지역 안보의

중미, 반드시 평화공존해야

상호 존중은 국가간 왕래의 기본 준칙이자 중미 관계의 중요한 전제이다.

어떤 국가도 중국을 누르고 억제하면서 중국과 양호한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세계 최대의 발전도상국과 발달국으로서 중국과 미국은 지구에서 오래동안 존재할 것이며 그 때문에 양국은 반드시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 중미 양국은 광범위한 공동이익과 폭넓은 협력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파트너가 돼 상호 성취와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다.

중국측은 계속해서 습근평 주석의 제시한 '상호존중 · 평화공존 · 협력상생'의 3원칙에 따라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노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측이 양국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력사 발전의 대세를 정확히 인식해 객관적 · 리성적으로 중국의 발전을 바라보기를 기대한다. 또한 중국과의 왕래를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중국측과 함께 양국에 이익이

기둥이 됐다.

력사적으로 남겨진 문제와 현실의 리익 모순을 모두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중국측은 주변 국가에 대한 일방적 개방을 포함한 개방을 계속 확대하며 주변국과 함께 더욱 많은 발전 혜택을 공유할 것이다.

중국과 미국이 이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며 지역 국가들도 이를 환영하지 않는다. 미국측이 이른바 '인도 · 태평양전략'을 내놓은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지역 국가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문제제기를 만들고 분쟁을 일으킨 것에는 아무 것도 없다.

아시아는 대국이 힘을 겨루는 격투장이 아니라 국제협력의 시범지가 되어야 한다. 중국은 개방적인 지역주의를 주장하며 상호 존중과 호혜상생의 기초 위에서 아시아의 발전 기회를 공유하고자 한다.

될 뿐만 아니라 세계에 혜택을 가져다주는 올바른 공존의 길을 걸어가기 바란다.

미국은 최근 수년간 이어진 관세 전쟁, 무역전쟁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무역 적자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제조업의 경쟁력이 높아졌는지 떨어졌는지, 통화팽창이 호전됐는지 악화됐는지, 민중의 생활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중미 관계는 상호적이고 대등하다. 협력을 선택한다면 호혜상생을 이룰 것이고 한사코 탄압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단호히 반격할 것이다.

중국을 세계에서 마약금지정책이 가장 엄격하고 철저한 국가이다. 이미 2019년 미국측의 요청에 따라 세계에서 어떤 국가보다 먼저 모든 펜타닐류 물질을 관리 목록에 올렸다. 미국의 펜타닐 담용 문제는 미국 스스로 직면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중국측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미국에 각종 도움을 제공했으므로 미국측은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는 안되며 리유없이 관세를 부과해서도 안된다. 이는 책임있는 대국의 처사가 아니다.

중로는 신형 대국관계의 선두에 서있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로 우호의 력사 틀리는 변하지 않으며 내생적 원동력은 줄어들지 않는다.

중국과 로씨야는 '비동맹, 비대항, 제 3자를 겨냥하지 않는다'의 공존 법을 모색함으로써 신형 대국관계의 선두에 서있고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모범을 세웠다.

성숙하고 강인하며 안정적인 중로 관계는 지정학적 경쟁 속의 변수가 아니라 요동치는 세상 속의 상수(恒量)이다.

중국과 로씨야는 각자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주요 전장에서 혈전을 벌이며 세계반파쇼전쟁의 승리를 위해 거대한 민족적 희생을 하고 중대한 력사적 기여를 했다.

'룡과 코끼리의 협력'은 올바른 길

상호 성장을 이끌어주는 동반자가 되어 '룡과 코끼리의 협력'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과 인도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하고 올바른 길이다.

상호 소모보다 지원을, 경계보다 긴밀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양국

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리익에 부합된다.

중국과 인도가 협력한다면 국제관계 민주화와 글로벌 사우스(全球南方)의 성장은 실현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중국 · 유럽 관계는 서로를 성공으로

중국과 유럽은 반세기 동안 교류해왔다. 가장 소중한 경험은 상호 존중이고 가장 강한 원동력은 호혜 상생이며 가장 일치한 공동인식은 다자주의이고 가장 정당한 대상 설정은 협력 동반자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중국 · 유럽 관계는 서로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세계를 밝힐 것이다.

양측은 기대할 만한 다음 50년을 함께 개척할 능력과 지혜가 있다.

중동의 공정 평화 위해 계속 노력

가지는 팔레스티나 인민의 소유이며 팔레스티나 영토의 불가분의 일 부분이다.

가자의 지위를 강제로 변경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며 새로운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민심을 저버려서는 안되며 공리를

폐기해서는 안된다.

중동지역이 불안정하면 세계가 안정되기 어렵다. 팔레스티나 문제는 늘 중동 문제의 핵심이다.

중국은 중동 인민들이 공정, 평화 그리고 발전을 확보하도록 계속해서 굳건히 노력할 것이다. / 이상 신화넷

정협 14기 3차 회의 제안심사 상황에 관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 14기 전국위원회 제안위원회 보고

▶ 1면에서
위원들은 제안을 통해 전문협상기구로서의 인민정협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협상민주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구를 실천하며 직책을 리행하고 책임을 다하는 책임담당으로 발전의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분진하는 힘을 결집시켰다.

대회가 폐막된 후 제안은 주관단위에 교부되어 처리하게 된다. 이번 대회의 제안 제출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제안은 평소 제안으로 즉시 심사 처리된다.

이상의 보고를 심의해주기 바란다.

[북경 3월 10일발 신화통신]